



“독학 의학박사”의 자수성가기: 안과 의사 공병우(1907-1995)를 통해 살펴 본 일제강점기 의료계의 단면

김태호*

1. 머리말
2. 약관의 나이에 의사검정시험을 통과하다
3. 연고 없이 실험실에 입국하다
4. 가보지 않은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다
5. 학자의 꿈을 접고 ‘명사’로
6. 결론: 한국의학사에서 공병우의 자리

1. 머리말

공병우(公炳禹, 1907-1995)는 88년여의 생애 가운데 약 40년은 안과 의사로, 약 30년은 타자기 발명가로, 그리고 마지막 20년 가까이 한글 프로그래머이자 한글운동의 후원자로 살았다. 의학강습소 출신으로 검정시험을 통해 의사가 되고,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여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안과 전공 의학박사학위까지 받은 그의 독특한 이력은 당대에도 화제가 되었다. 공병우는 그렇게 얻은 명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 전문 개인의원 “공안과”를 열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유지되는 기틀을 닦았다. 또한 국한문 혼용이 당연하던 시대에 순한글 타자기를 보급하며 효율과 속도의 가치를 설파하고, 자신의 타자기가 정부 표준으로 인정받지 못한 뒤에도 굶핍없이 그 우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110-744

전화: 02-2072-0792 / 이메일: salsin@snu.ac.kr

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독특한 삶의 경로는 동시대인들에게도 이미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예컨대 『한국일보』는 1965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한국의 유아독존”이라는 연재 기사를 내어 열 명의 고집불통을 소개했는데, 공병우는 4월 11일에 최현배, 이병도 등의 뒤를 이어 이 연재의 여섯 번째 주인공으로 소개되었다. 그의 독특한 개성은 많은 적을 만들기도 했던 반면 많은 열렬한 추종자를 낳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공병우의 업적을 기리고 그가 고안한 “세벌식” 자판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공병우의 전기도 끊이지 않고 출판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인지도에 비해 공병우의 의사로서의 면모를 평가한 글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공병우를 소개할 때 보통 그를 꾸미는 말은 “한글타자기를 만든 발명가”, “사진작가”, “한글운동가” 등이다. 심지어 “괴짜 천재”, “한국 최고의 고집쟁이” 등 성격에 대한 묘사가 공병우에 대한 소개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가 어떤 의사였는지 평가하는 글은 그에 비해 찾아보기 어렵다. 간혹 의사로서의 공병우를 소개할 때에도, 그가 의사였다는 사실은 “약관에 시험을 통과한 의사”라든가 “독학으로 박사학위를 딴 의사”와 같이 그의 자질을 입증하는 지표로서 동원되는 데 머무를 뿐이다. 그렇다면 “의사 공병우”는 “입지전적 괴짜 천재 공병우”라는 전설을 빛내기 위한 전사(前史), 또는 화폭의 배경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가? 의사로서 공병우의 업적은 후대의 의사학자들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없는가?

사람들이 공병우를 기억할 때 주로 한글타자기를 떠올리는 하지만, 공병우의 경력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안과의사다. 공병우는 일생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쓰거나 인터뷰할 때 자신이 의사라는 점, 그리고 단순히 성공한 개업의가 아니라 의학자로서 업적을 거두었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다. 안과의사로서의 삶은 공병우의 초기 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이후로도 이어진 그의 성격과 인생관을 형성하였다. 공병우는 의사면허를 따고 나서 스스로 의학연구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등 당시 한반도 최고의 의학

교육기관에서 연구에 참여했다. 그리고 독학, 검정시험 출신, 그에 따른 어린 나이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결국 일본 제국대학 제도가 인정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연구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입증했다. 아울러 광복 직후 경의전이 서울의과대학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잠시나마 공병우가 안과 교수로 초빙되었던 사실도 당대에 그의 업적과 역량이 인정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병우는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접은 뒤 한국인 의사로는 최초로 개인 안과병원을 개업했고 이를 매우 잘 운영했다. 공안과는 안과뿐 아니라 당대 가장 유명한 개인병원 중 하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유명했던 다른 개인병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오늘날 명맥을 잇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잠깐의 폐업기간을 제외하고는 오늘날까지도 성업 중이라는 점에서 공안과와 그 설립자 공병우는 우리나라 병원사와 의료사에서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공병우는 나중에 타자기 사업에 전념한 뒤에도 타자를 맹인 재활 사업의 수단으로 여기고 장려하는 등 그의 일생에 걸쳐 안과의사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괴짜 천재 발명가” 등의 대중적 이미지에 가려져 지금까지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의학자로서의 공병우의 모습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공병우가 의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당대의 전형적인 의사의 교육 경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의료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단서를 여러 가지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병우라는 개인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 공병우의 초기 생애가 일제강점기 의사직의 한 단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례 연구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현재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 글은 이를 위해 의학도에서 의학자로, 다시 개업의로 변신해 가는 공병우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나라 근대 의료사의 단면을 공병우라는 창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2. 약관의 나이에 의사검정시험을 통과하다

공병우는 1907년 1월 24일(음력 1906년 12월 30일) 평안북도 최북단의 벽동군(碧潼郡) 성남면 남성동에서 공정규와 김택규의 8남매 중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¹⁾ 할아버지 공희수가 자수성가한 부농이었으며 아버지가 동익상회라는 상회를 운영했던 덕에 공병우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는 전통 교육을 받다가 열세 살에 소학교에 입학하여 성남면, 벽단(송서면), 벽동읍 등을 옮겨 가며 5학년 과정까지 마쳤다. 1906년 생으로 계산하여 한국식 나이로 열세 살이면 1918년이니, 1922년에 상급학교로 진학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만 4년만에 5학년 과정까지 마친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공병우는 소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자서전에 쓰고 있다. 1922년에는 소학교 6학년에 진학하는 대신 상급학교 시험을 보기로 결심하고 신의주고등보통학교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무시험 진학이 가능한 3년제 의주농림학교로 진학했다(공병우, 1989: 21).

공병우의 자서전 기록에 따르면 의주농림학교는 시설이나 교육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병우는 2학년 2학기에 작문 수업 과제로 학교의 미비한 점을 비판하는 글을 내었는데 이것이 도리어 담당 교사와 교장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자질과 강단을 높이 평가한 고마츠(小松) 교장은 그에게 3년 과정을 다 마칠 것 없이 경성의 상급학교로 진학할 것을 권유하였다. 교장은 1922년 개교한 경성치과의학교(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전신)에 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공병우는 치과의사보다 의사를 선호하였으므로 막 신설된 도립평양의학강습소(평양의학전문학교의 전신)에 몰래 응시하여 1924년 4월 1일 최종 합격하였다(공병우, 1989: 29-35; 매일신보, 1924).

1) 공병우를 소개하는 대부분의 문헌은 1906년 출생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양력으로 환산하면 1907년으로 출생 연도를 잡는 것이 타당하다.

도립평양의학강습소는 조선총독부의 관립의학교육 확충의 일환으로 1923년 문을 열었다. 1920년대 들어 고등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종래의 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 등으로는 의학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특히 평양과 대구 등 지방의 요구가 거세어졌다. 이에 대해 총독부 위생과에서는 1922년 신년사로 “의사의 수가 적고 의료기관이 심히 부족하다. 장차 평양이나 대구에 의학전문학교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의학교 신설 방침을 밝혔다(기창덕, 1995: 263). 1923년 1월 자혜의원 원장 우치무라 야스타로(内村安太郎)는 의원 안에 야간 “사립의학강습회”를 개설하여 의사시험을 준비하는 도내 의사지방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 강습회는 같은 해 4월 9일 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2년제 “도립평양의학강습소”로 승격되었다(기창덕, 1994: 55). 중학교와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지방생은 시험 없이 받아들였고 기타 학력 소지자는 시험으로 선발했다(매일신보, 1924). 공병우는 이 학교가 문을 연 이듬해에 시험을 거쳐 60명의 신입생 가운데 하나로 입학한 것이다.

공병우는 자서전에서 “나는 평생을 통해 졸업장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술회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공병우를 치장하는 훈장과 같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공병우, 1989: 35). 앞서 쓴 바와 같이 공병우는 소학교를 5학년까지 마쳤고 의주농림학교도 2학년까지만 마치고 평양의학강습소에 진학하였다. 그리고 1926년 10월 조선총독부 의사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의사 면허를 땀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매일신보, 1926). 공병우는 “공부한 지 1년 후에” 제1부 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에… 무난히 제2부에도 합격”했으며, “또 그 반년 후에 제3부 시험에까지 무난히 통과”하여 “2년 반 동안에 의사 검정시험의 모든 과목을 세 번 응시하여 한 번도 낙방하지 않고 거뜬히 통과”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공병우, 1989: 37-38). 이 회고를 토대로 추정하면 제1부는 1925년 4월, 제2부는 1926년 4월, 제3부는 1926년 10월 응시하여 각각 합격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신의 인생 전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므로 여기에 대해 공병우의 기억이 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이

추정은 1924년 4월 평양의학강습소에 입학했고 1926년 10월 의사검정시험에 합격했다는 『매일신보』 기사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앞서 소개했다시피 설립 당시 도립평양의학강습소는 2년제였다. 의학전문학교로 승격하자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1929년 4월 30일자로 입학자격과 수업연한 등을 의학전문학교 수준으로 조정하여 4년제가 되었고, 1933년 3월 8일에는 정식으로 평양의학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기창덕, 1995: 263-269). 1923년 4월 9일자 『조선총독부 관보』 제3195호에 실린 “도립의학강습소 규정”(조선총독부 평안남도령 제7호) 제3조에도 “강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공병우가 다녔던 무렵 평양의학강습소는 2년제였다는 것이고, 따라서 “2년 반 만에” 의사검정시험을 통과했을 시점에는 공병우는 이미 수업 연한을 다 채워 졸업했을 것이다. 그런데 “평생 졸업장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공병우의 회고는 의학강습소 역시 정식으로 졸업하지 않았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이 사실과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평양의학전문학교는 1933 전문학교로 정식 승격하면서 공식적으로 “제1회” 졸업식을 열었다는 기록이 있으나(매일신보, 1933), 승격 전에도 강습소 졸업식이 있어서 1923년 입학한 평양의학강습소의 첫 학생들은 1925년 3월 말 졸업식을 가졌다(매일신보, 1925). 유추하면 공병우도 1926년 3월말 정상적으로 “졸업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병우는 졸업 후에 의학강습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공병우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제3부 시험을 준비할 당시 “강습소의 공부도 도립 병원에 나가, 임상 실습을 하는 일과로 꼭 차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공병우, 1989: 38). 실제로 1926년 3월 15일자 『조선총독부 관보』 제4068호에는 “도립의학강습소 규정 개정”(평안남도령 제11호) 내용이 실려 있는데, “본소를 졸업한 이를 위하여 실습과를 설치하고, 실습과의 수업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실습과생의 정원은 15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제12조로 신설되었다. 즉 공병우는 평양의학강습소를 졸업하고 마침 신설된 실습과에 진입하여 실습을 하며 제3부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하였을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다. 평양의학강습소를 떠나기 전에 의사검정시험에 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흔히 알려진 것처럼 “재학 중”에 시험을 합격하여 학교를 중퇴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졸업장을 받았느냐는 다소 지엽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과는 별개로, 공병우가 의학강습소에서 의학에 정진하여 실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당시 공병우의 강습소 동기들 50명 중 약 40명이 1925년 제1부에 응시했으나, 제1부 합격자는 공병우를 포함하여 세 사람에게 지나지 않았다. “평양 도립 병원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도 낙방했고 “10년 동안 스무 번이나 시험을 보았지만 1부에도 합격 못한 이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의사검정시험은 강습소 학생들에게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공병우, 1989: 37). 게다가 제2부와 제3부까지 세 번의 시험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2년 반만에 모두 연달아 합격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다. 즉 공병우는 평양의학강습소의 교육을 통해 상당한 의학 지식을 갖추게 되었고, 그에 더해 본인의 각고면려를 통해 강습소의 다른 학생들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견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공병우는 약관의 나이(만 19세)에 의사 면허를 갖추고 인생의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3. 연고 없이 실험실에 입국하다

1) 한국의 노구치 히데요를 꿈꾸다

의사 면허를 딴 공병우는 평안남도립 신의주의원에 취직하였다. 취직 시점은 1927년 하반기에서 1928년 상반기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신의주도립의원은 1926년 12월 1일 설립되었지만(조선총독부, 1937), 1927년 7월 출간된 1927년도판 『조선총독부 및 부속기관 직원록』에는 신의주도립의원이 실려 있지 않고, 1927년 5월 26일의 『조선총독부 관보』 제120호의 “다이쇼 15-쇼와원[1926]년 관·도립의원 환자표”에도 신의주의원에 관한 통계는 없다. 당시

의 신문기사를 참조하면 새로운 시설에서 소외되는 의주 시민들의 반발 등으로 직원 채용과 개원 등이 늦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공병우가 신의주도립의원에서 일을 시작한 것도 빨라야 1927년 중반쯤이었을 것이다. 이듬해인 1928년도관 『조선총독부 직원록』에는 공병우가 7급 의원(医員)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당시 신의주도립의원 직원의 이름, 관직, 관등은 아래 목록과 같다(조선총독부, 1928).²⁾

- 무라타 미키오(村田美喜雄), 의관, 5등5급
- 오카가미(岡上新吉), 의관, 5등5급
- 오바(大場洪三), 의관, 6등7급
- 노무라(野村左武郎), 의원, 3급
- 조진석(趙震錫), 의원, 6급
- 공병우(公炳禹), 의원, 7급
- 타가와(田川崇夫), 서기, 9급
- 스즈마(鈴間留吉), 약제수, 10급

이 병원에 함께 몸담았던 조진석(趙震錫, 1901-1990)의 회고에 따르면,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의 그의 눈에는 신설된 신의주도립의원은 미비한 점이 많았던 듯하다(백인제박사전기간행위원회, 1999: 129). 하지만 갓 스무 살을 넘긴 공병우에게는 의사검정시험을 통과하자마자 관립의원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공병우도 자서전에서 “아마도 평안북도 평의원이면서 면장이었던 5촌 아저씨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이 취업 소식을 일가친척 모두가 크게 환영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는 의관 세 명, 의원 세 명 등 여섯 명의 의료진 가운데 말단으로 내과에서 병리실험실 담당 조수가 되었고 검사와 세균 배양 등의 업무를 맡았다(공병우, 1989: 42). 공병우는 자신이 “다무라 원장의 조수 겸 병리 실험실 담당”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지만 위 목록을 토대로 추정하면 무라타 미키오(村田美喜雄)의 조수였을 것

2) 일본인의 이름 중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발음의 한글 표기를 생략하였다.

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병우는 “평소에 말수가 적은 어머니까지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했던 이 자리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그는 차츰 신의주도립병원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본격적인 의학 연구에 뜻을 두게 되었다. 어린 시절 읽었던 노구치 히데요(野口英世)의 전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 자서전에서 그가 여러 차례 밝힌 이유였다. 의학 연구를 하려면 독일어를 공부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신의주에서 국경을 건너 중국 안동현에 살고 있는 독일인을 찾아가 독일어 개인 교습을 받기도 했다(공병우, 1989: 43). 비록 독일어 공부는 힘에 부쳐 오래 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이 일화를 통해 공병우가 의학강습소에서 배웠던 수준의 수험을 위한 의학지식이나 실무 중심의 의술을 뛰어넘어 본격적인 의학 공부에 뜻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의학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좇아 공병우는 결국 서울로 이주하였다. 공병우가 “신의주 생활 1년만에 서울로 향했다”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남기지 않는 데 그 시기는 대략 1929년 초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신의주도립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며 가깝게 지냈던 조진석이 당시 경성 의학전문학교의 조수로 이직해 있었는데, 그가 공병우를 백인제에게 소개해주며 서울행을 권유하였던 것이다(공병우, 1989: 44) 조진석은 평안북도 정주군 오산면 출신으로, 1927년 경의전을 우등졸업하고(동아일보, 1927) 모교 조수로 잠시 일하다가 신의주도립병원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신설 신의주도립병원의 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던 참에, 마침 1928년 경의전 부속 병원이 신축되어 각 교실에 새로 사람을 채용할 여력이 생기자 선배인 백인제가 주임 교수로 있던 외과학교실에 조수로 들어가게 되었다(백인제박사전 기간행위원회, 1999: 128-129). 그는 경의전을 떠나 1930년부터 평안북도 정주 오산고등학교 병원의 교의로 일하기도 하지만(동아일보, 1930), 다시 경의전 연구생 신분으로 1937년 7월 일본 나고야제국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나고야에서는 경의전 시절 백인제의 지도교수였던 키리하라 신이치(桐原真

一, 1889-1949)의 지도를 받아 1940년 2월 10일 박사학위를 받았다(동아일보, 1940). 조진석은 귀국 후 조외과의원을 열었고, 광복 후 오산학원이 남한으로 옮긴 뒤에는 오산학원에 관여하여 1980년대에는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82). 이 간략한 이력에서도 평안북도 인맥, 특히 백인제와 오산학교가 조진석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백인제는 평안북도 정주군 남서면 출신으로 조진석과 동향이었고, 오산학교와 경의전 동문이기도 했다. 한편 공병우는 조진석과 같은 평안북도 출신에다 신의주도립의원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었다. 조진석은 경의전에서 함께 일하게 된 뒤인 1930년 공병우의 중매를 서기도 했을 정도로 둘 사이는 가까웠다(공병우, 1989: 46-49). 의료계의 변방이었던 평양의학강습소 출신의 공병우는 조진석이 다리를 놓아 당시 한반도 의료계의 핵심인물이었던 백인제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백인제를 만난 공병우는 노구치와 같은 세균학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백인제는 그를 경의전 미생물학 교실의 유일준에게 소개해 주었다. 유일준은 백인제와 더불어 경의전에서 단 둘 뿐인 한국인 교수였으므로 역시 긴밀한 관계로 이어져 있었다. 유일준은 공병우를 무급 견학생으로 받아주기로 “즉석에서 승낙”하였고, 공병우는 신의주 생활을 청산하고 동대문에서 하숙하며 경의전에 출근하기 시작했다(공병우, 1989: 44-45).

2) 세균학에서 안과학으로

무급 견학생 생활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신의주도립의원에서 의원 6급이었던 조진석이 70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백인제박사전기간행위원회, 1999: 129), 1920-30년대 판임(判任)문관 6급과 7급의 본봉 월액이 각각 75원과 65원이라는 기록이 있다(박이택, 2006: 309). 이에 비추어 보면 의원 7급 공병우도 60원 안팎의 월급을 받았을 터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무급 견학생의 길을 선택하였으니 한동안은 살림이 쪼들렸을 것이다. 공병우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마부들이 마소를 데리고 묵는 동대문 부근의 여인숙에서 하숙하며 걸어

서 출퇴근했다(공병우, 1989: 45).

공병우의 회고에 따르면, 유일준은 공병우가 감기로 사흘을 내리 결근하자 안부를 물으러 그의 하숙방에 직접 찾아왔고, 조선히otel 양식당에 데려가 서양 요리를 사 주는 등 그에게 나름대로 신경을 써 준 것 같다. 그러나 특별한 수입도 지위도 없이 견학생 신분으로 기초의학 연구에 정진한다는 것은, 당장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래 전망을 생각해 보아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기초의학의 길을 끝까지 간다면 결국 의학박사 학위를 따서 교수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경력을 꿈꾸기가 어려운데, 식민치하에서 조선인 의학도에게 그와 같은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더욱이 변방의 농림학교 중퇴에 신설의 학강습소 출신인 공병우에게는 그 기회의 문은 한층 더 좁았다.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338명 가운데 평양의전(전신인 의학강습소 포함) 출신은 24명으로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이흥기, 2010: 200). 유일준도 이 한계에 대해 공병우에게 이야기한 일이 있다. 다시 공병우의 자서전을 보면, 유일준이 어느 날 “공병우군이 의학전문학교만 나왔어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공병우, 1989: 45). 이는 공병우의 재능을 높이 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달리 해석하면 공병우에게 더 이상의 후견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유일준의 속마음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었든,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공병우도 마냥 기초의학자의 길만을 고집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결국 공병우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유일준 휘하를 떠나 과를 바꾸었다.³⁾ 1929년판 『경성의학전문학교 일람』의 직원 명단을 보면, 1929년말 현재 공병우가 이나모토 카메고로(稲本龜五郎) 교수 휘하의 병리학 및 법의학교실에 조수 신분으로 몸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경성의학전문학교 1929: 96). 그러나 공병우는 병리학교실에 대해서는 자서전에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유일준 휘하에서 사타케 슈이치(佐竹秀一) 교수의 안과학교실로

3) 공병우는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백인제의 도움을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다(공병우, 1989: 49).

“안과 조수로 3년 동안 근무하기로 하고” 자리를 옮겼다고 쓰고 있다(공병우, 1989: 49-50). 실제로 1930년부터 1934년까지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일람』에서 공병우가 안과학교실 조수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경성의학전문학교, 1930: 121; 1931: 122; 1932: 126; 1933: 126; 1935: 150).

그렇다면 1929년 하반기에서 1930년 상반기 사이에 이르는 얼마 동안 공병우가 병리학교실 소속이었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안과 입국 시기에 대해 공병우는 상충하는 두 가지 정보를 남기고 있다. 안과 급료를 받게 되면서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진술(공병우, 1989: 49-50)이 있는가 하면, 안과로 옮긴 해의 여름에 유일준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도 적고 있다(공병우, 1989: 46). 공병우는 이용희와 1930년 11월 10일에 결혼했으며 유일준이 한강에서 수영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1932년 8월 12일의 일이다. 한편 1930년판 『경성의학전문학교 일람』에 공병우가 안과학교실 조수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위에 밝힌 바와 같다. 또 1930년 9월 조선의학회 제18회 총회 겸 학술대회에서 공병우가 발표를 했을 때(매일신보, 1930), 발표문 요지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안과학교실(사타케 교수)”이라고 소속이 명기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1930년 9월 전에 공병우가 안과학교실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아래 인용하듯 1930년 9월의 발표문이 “1929년 10월 30일부터 이듬해 5월 30일까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동안 공병우는 경의전 부속병원 안과 외래환자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병리학 및 법의학교실 소속이었던 기간에도 실제로는 안과 환자를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공병우가 1929년 4월 미생물학교실에 견학생으로 들어갔다가, 한 학기 뒤인 10월부터는 명목상 병리학교실 조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과 소속이 되고, 1930년 6월 이후에 명실상부 안과로 옮겼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뒤에 상술하겠지만, 공병우의 연구 논문에 드러난 실험 기간과 같은 여러 가지 단서를 조합해 보면, 1929년 하반기부터 경의전 병리학교실을 거쳐 안과학교실로 옮겨 만 3년, 즉 1932년 상

반기까지 조수로 일하고 1932년 가을 무렵부터는 경성제대 도쿠미츠 교실에서 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조수 생활 초기에는 월급이 30원이었으나 결혼 이듬해부터 월급이 30원에서 50원으로 올랐다고 공병우가 회고하는 것도, 임시로 병리학교실에 적을 두었다가 1930년에 정식으로 안과학교실로 소속을 옮겼을 가능성과 부합한다(공병우, 1989: 52).

조선의학회 총회에서 공병우가 발표한 논문은 “조선인의 건강한 결막낭 내에 대한 세균학적 연구[朝鮮人健康結膜囊內ニ於ケル細菌学的研究]”라는 제목으로, “쇼와4(1929)년 10월 30일부터 이듬해 5월 30일까지 ... 건강한 눈을 가진 조선인 62명 105안(眼)”의 결막낭 내 세균의 유무와 비율을 조사하여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통계 처리한 것이다(公炳禹, 1930: 1779). 이 연구는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 기요(京城医学専門学校紀要)』에 논문으로 실리는데, 연구시기와 주제 모두 세균학에 뜻을 두었다가 안과학으로 옮기게 된 공병우의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公炳禹, 1932: 369-386). 다시 말해서 공병우는 세균학 연구를 위한 사례 조사로 경의전 부속병원 외래 환자의 눈의 감염병을 연구하다가 아예 안과학교실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다고도 추정할 수 있다.

4. 가보지 않은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다

1) 공병우의 성실함을 인정한 사타케

사타케 슈이치(佐竹秀一, 1886-1944)는 1886년 이시카와(石川)현에서 출생하여, 1909년 가나자와(金沢)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제26445호)를 받았다. 졸업 후 1912년까지 모교에서 안과 부수(副手)로 근무하였다. 이듬해인 1913년 7월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총독부의원에 의원(医員)으로 자리를 잡았다. 1916년 4월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가 개교하면서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1920년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 겸 조선총독부의원(구 대한의

원) 의관(醫官)으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1928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이 개설되면서 경의전 안과 교수였던 하야노 류조(早野龍三)가 제국대학으로 자리를 바꾸자, 사타케가 교수로 승진하여 안과를 이끌었다. 이후 1944년 서울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경의전 교수로 봉직했고, 1939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경의전 부속병원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조선총독부, 1939; 조선총독부, 1944).

사타케와 만나면서 공병우는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었다. 공병우는 검정시험 출신이라는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타케 교실에서 근무하면서 경의전 출신 동료들보다 더 열심히 근무하고 연구하였다. 사타케는 공병우의 성실함을 높이 사 적극적으로 그를 후원하였다. 연말에 경의전 출신의 다른 조수들이 모두 50원의 상여금을 받을 때 다른 조수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병우에게만 100원의 상여금을 준 일도 있다(공병우, 1989: 52). 사타케의 신임을 바탕으로 공병우는 연구에 정진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1932년에는 앞서 밝혔듯 1930년 조선의학회 총회에서 발표한 연구 성과를 발전시켜 『경성의학전문학교기요』에 논문을 상재하였다. 그리고 한국 최초로 트라코마 균의 염색에 성공하는 등 유일준에게 배운 세균학의 기초도 여러 모로 활용하였다(공병우, 1989: 53).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병우에게 경성제국대학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해 보고 박사학위에 도전해 보라고 권유한 것이 바로 사타케였다. 공병우도 자서전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은 후진 양성을 위해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공금을 할애해 가며 격려해 주고 길을 터 준 사다께 안과 교수”라고 회고하여 사타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공병우, 1989: 60). 그 과정을 자서전과 기타 자료를 토대로 복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32년 중반 무렵, 월 50원의 급여로 가족을 부양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생각한 공병우는 3년 기한의 조수 생활을 마쳤으므로 시골에 가서 개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타케에게 그 뜻

을 전했다.⁴⁾ 그런데 사타케는 공병우에게 공부를 계속하여 박사학위를 딸 것을 강력히 권했고, 나아가 공병우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병리학교실 제1병리학강좌의 도쿠미즈 요시토미(徳光美福) 교수에게 천거하여 병리학교실에서 연구생 자격으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공병우가 회고하는 당시의 대화는 여러 가지로 흥미로우므로 아래에 인용한다.

“그것만은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학벌도 없고, 독일어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연구를 할 형편도 못 됩니다.” 박사 학위를 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의 여부는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었다. 그러나 사타케 교수는 “학벌과 독일어 따위가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 “실력이 제일이지, 학벌이 무슨 문젯거리가 되겠느냐”고 했다. 경성 제대의 유명한 도쿠미쓰 교수나, 일본 나고야 대학의 오구치 교수도 학벌 없이 실력으로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라면서, 너도 하면 된다고 부추겨 주었다(공병우, 1989: 54).

이 회고는 물론 공병우의 머리 속에서 한 차례 정리된 것이므로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고 읽더라도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 있는데, 우선 사타케가 적극적으로 공병우를 경성제국대학에 천거할 정도로 그의 실력을 높이 사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타케는 심지어 공병우를 도쿠미즈의 연구생으로 들이면서 경의전 안과학교실에서 받던 조수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도 했다(공병우, 1989: 55). 이와 같은 배려는 의례적인 인사치레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사타케는 공병우를 아끼는 제자로서 받아들이고 후원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학벌 없이 실력으로 대학 교수가 된 사람”으로 사타케가 예를 든 것이, 바로 뒷날 공병우의 학위 취득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두 사람인 도쿠미즈와 오구치라는 점이다. 도쿠미즈는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공병우의

4) 이 “3년째 되던 어느 날”은 1932년 중반으로 추정된다. 경성제대에서 실험한 결과를 정리한 논문들이 1932년 8월 말에서 연말까지의 실험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로부터 역산하면 사타케 교실로 들어간 것은 1929년 중반 또는 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학위논문의 토대가 되는 실험을 지도했으며, 오구치 추타(小口忠太)는 나고야제국대학의 교수로 뒷날 공병우의 학위논문을 심사하고 학위를 준 사람이다. 1932년의 사타케가 실제로 두 사람을 예로 들었는지와 상관없이 — 아니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더욱 — 흥미로운 점은 1989년의 공병우가 도쿠미츠와 오구치를 자신과 공통점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공병우가 학벌이 없는 자신이 박사학위를 따도록 이끌어준 스승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 대한 동류의식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다시 자신과 그들의 공통점을 찾게 만들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2) 대학의 연구를 경험하다

사타케의 강력한 권유로 공병우는 도쿠미츠의 개인 문하생 자격으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제1병리학강좌에서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했다. 공병우는 개업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참이라 사타케의 호의가 다소 부담스럽기도 했으나 “대학에서 연구를 한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를 배운다는 호기심”도 있어서 경성제대에 발을 들여 놓았다(공병우, 1989: 55).

도쿠미츠 요시토미(徳光美福, 1889-1952)는 오이타(大分)현 출신으로⁵⁾ 1910년 나가사키(長崎)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개보(介補: 의사보에 상당) 자격을 얻었다. 이후 유럽 유학을 떠났다가, 1917년 귀국하여 도호쿠(東北)제국대학 의학부 강사로 2년간 봉직한 뒤 1919년 한반도로 건너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1921년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다시 1926년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뒤에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로 옮겼고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를 떠날 때까지 경성제국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종사했다. 일본에 돌아가서는 1948년부터 요나고(米子)의과대학(돗토리리대학의학부의 전신) 교수가 되었고 1951년에는 학장이 되어 1952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활동하였다(講談社, 2009). 한반도에 체류하는 동안 67편의 논문을

5) 『일본의적록』에는 메이지24(1891)년 출생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다(혼다, 1926).

쓰고 230편의 학생 논문을 지도하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병리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지체근, 1996). 도쿠미츠와 사타케는 고향이나 출신 학교가 서로 다르므로 둘의 교분은 도쿠미츠가 경성제대로 옮기기 전 경의전 시절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둘 사이에 공병우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그가 처음 상경했을 때 백인제와 조진석 등 평안도 인맥의 도움을 받아 경의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공병우가 일본인 교수 사이의 인맥에 힘입어 경성제대에서 실험을 하고 결국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처음에 도쿠미츠가 공병우에게 지시했던 실험은 당시 살균제로 쓰던 트리파플라빈(Trypaflavine, 아크리플라빈 Acriflavine의 상품명)을 주입하여 토끼 귀 혈관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었다. 트리파플라빈을 토끼의 귀 정맥에 주사하고 직사광선을 쬐여 귀가 붓게 만든 뒤 피를 검사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1930년대 중반 도쿠미츠가 『日本医事新報』 등에 발표한 논문은 신(腎)호르몬(nephrohormone)에 대한 것 등이어서 이 실험이 도쿠미츠의 연구 이력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공병우는 약 3개월 동안 성실히 실험을 했다. 그러다가 공병우는 임의로 실험을 변형하여 토끼의 귀가 아닌 눈에 햇빛을 쬐어 보았더니 망막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공병우가 이 결과에 주목한 것은, 1929년 아이치(愛知)의과대학(나고야 제국대학 의학부의 전신)에서 화학물질을 주사한 뒤 광학 자극을 주면 여러 안질환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망막염과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神戸, 1929).

연구생이 지도교수가 지시한 실험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당시의 실험실 문화에서는 용납받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실험 결과를 얻은 공병우는 용기를 내어 지도교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사타케가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공병우는 “교수가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면 시골에 가서 개업을 하면 그만이란 배짱”으로 도쿠미츠를 직접 찾아가 실험결과를 보고했다. 도쿠미츠는 의외

로 “재미있는 일”이라고 격려하며 당장 그쪽으로 주제를 바꾸어 실험을 계속 할 것을 권했다. 이렇게 연구생의 건의로 실험 주제가 바뀌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어서 이 소식은 외국에 금새 소문이 났다고 한다(공병우, 1989: 56-58).

공병우는 본격적으로 화학물질과 광학 자극이 중심성 맥락·망막염(chorioretinitis centrali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에 착수하였다. 그는 50여 마리의 토끼와 약간의 개, 고양이, 기니피그[海獺]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1932년 말부터 1935년까지 네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1932년 11월 『경성의학전문학교기요』에 출판한 첫 번째 논문 “소위 중심성 맥락망막염(마스다 씨)의 본태에 관한 실험적 연구[所謂中心性脈絡網膜炎(増田氏)ノ本態ニ関スル実験的研究]”는 기존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자신이 실험한 결과 트리파플라빈과 에오신(Eosin) 등의 화학물질을 주입하고 광학 자극을 줄 경우 동물에게 중심성 맥락망막염이 발생한다는 것과, 이 염증은 사람의 중심성 맥락망막염과 같은 양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공병우, 1932b). 이어지는 제2보는 유색 토끼와 개에 대한 실험 결과를 이어서 소개하고 있으며(공병우, 1933), 제3보는 빛에 의해 유발된 중심성 맥락망막염이 간장 기능에 어떤 관계를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공병우, 1934b). 그리고 1935년 출간된 제4보는 또 다른 안질환인 울체성 황달(obstructive jaundice)이 빛과 화학물질, 특히 포르피린(porphyrin)에 의해 유발되는지 실험을 통해 밝히고 있다(공병우, 1935). 이 중 제3보 “소위 중심성 맥락망막염(마스다 씨)의 본태에 관한 실험적 연구(제3보): 광역학적 중심성 맥락망막염과 간장 기능과의 관계[所謂中心性脈絡網膜炎(増田氏)ノ本態ニ関スル実験的研究(第三報) 光力学的中心性脈絡網膜炎ト肝臟機能トノ關係]”는 『日本眼科学会雑誌』 제38권 6호(1934년 6월)에 발표되었고, 나머지는 『경성의학전문학교기요』에 수록되었다. 이밖에도 1934년 5월에는 『中央眼科医報』에 “중심성 맥락망막염의 원인에 관한 기타하라 씨의 논저를 읽고[中心性脈絡網膜炎の原因に関する北原氏の論著を読んで]”라는 짧은 논고를 실어 비슷한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 있던 기타하라 에이케이(北原栄恵)의 연구

를 평가하기도 했다(공병우, 1934a). 이것은 공병우가 한반도에서 고립된 연구자로서 실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의 최신 연구를 계속 주시하면서 그에 대응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실이다.

중심성 맥락망막염에 대한 논문들의 저자 정보에는 모두 공병우가 경성제대 의학부(지도교수 도쿠미츠)와 경의전(지도교수 사타케)에 동시에 소속된 것으로 적혀 있다. 한편 제3보와 제4보가 출판되는 사이에 공병우는 『實驗眼科雜誌』 제158호(1934년 9월)에 “전두개저 골절을 동반하는 안외상의 일례 [前頭蓋底骨折ヲ伴ヘル眼外傷ノ一例]”라는 임상사례 논문을 한 편 더 출판했는데, 여기에는 소속을 경의전 한 곳만 표기하였다(공병우, 1934c: 512). 이 논문은 공병우가 1931년 10월 신의주 출장길에 진찰했던 외상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의 양태에 대한 기록인데, 경성제대에서 했던 실험과 관계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의전 한 곳만 소속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공병우가 도쿠미츠의 지도 아래 경성제대에서 실험한 기간은 그다지 길지는 않았다. 논문에서 밝힌 실험 날짜를 토대로 추산해 보면 1932년 8월 하순에서 12월 까지 약 3개월여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사타케의 호의로 경의전에서 급여를 받고 있던 처지라 오래 실험을 하기도 어려웠을 테지만, 경성제대의 기성 학자들과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병우의 자서전에 따르면 도쿠미츠가 그의 실험에 관심을 보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조교수가 “연구실에 영문 타자기 한 대를 기증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⁶⁾ 당시 영문 타자기는 그 값이 공병우의 월급의 세 배인 150원에 이르는 고가품이었다. 공병우는 이에 대해 자서전에서 “내가 박사 학위를 꼭 얻어야 하겠다는 야심이 있었다면, 아마 빚을 얻어서라도 영문 타자기 한 대를 기증하고 그곳에서 연구를 계속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술회하며 조교수의 요구를 상당한 부담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공병우, 1989: 58).

결국 공병우는 사타케와 상의 끝에 경성제대에서의 실험을 그만두고 경의

6)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입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조교수는 아카누마 준시로(赤沼順四郎, 1930. 10. 18-1940. 10. 30 제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으로 돌아와 논문 집필을 마쳤다(공병우, 1989: 58). 경의전으로 돌아온 시기를 1933년 초라고 하면, 그는 이때부터 1934년 말 또는 1935년 초까지 다시 경의전 안과 조수로 활동하면서 실험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공병우는 자서전에서 경의전에 돌아온 다음 박사학위를 딸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경성의학전문학교 일람』 1933년판에는 1932년판과 마찬가지로 공병우가 안과 조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36년의 신문기사에도 “쇼와 4[1929]년 이래 경성의전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5월에 해주도립의원 안과주임으로 취임하여 현직중”이라고 공병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가 계속 경의전 소속으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동아일보, 1936).

참고로 당시 경의전 안과의 다른 한국인으로는 공병우에 앞서 윤치로(尹致魯, 재직 기간 1928. 10. 4 - 1929. 12. 1)가 강사로 일한 바 있었고, 신성우(申聖雨, 재직 기간 1933. 12. 31 - 1940. 7. 20)도 공병우와 재직 기간이 겹친다(기창덕, 1995: 155). 신성우는 1925년 경의전을 졸업하고 병리학교실에 입국하여, 1928년부터 1930년까지 강사로 근무하였다. 1931년 병리학 및 법의학교실 조교수까지 승진하였으나 1932년에는 돌연 안과학교실 조수로, 이듬해인 1933년에는 안과학교실 강사로 소속을 바꾸었다. 이후 1940년까지 쪽안과학교실에서 강사로 봉직한 뒤 독립하여 개업하였다(경성의학전문학교, 1929: 96; 1930: 116; 1931: 118; 1932: 126; 1933: 126; 1935: 128; 1940: 172; 지제근, 1996: 35). 광복 직후에는 경의전 병리학교실의 재건을 지원하였고, 서울대학교가 출범한 뒤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교수와 학과장(1949-1950)을 지내다가 한국전쟁기 납북되었다.

3) “도규계의 명랑보”

1935년 5월, 경성제대에서 실험한 결과를 네 편의 논문으로 정리하는 작업까지 끝낸 뒤, 공병우는 6년 동안 몸 담았던 경의전을 떠나 도립해주의원 안과 주임으로 부임하였다. 경의전을 떠난 배경을 공병우 스스로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신성우의 이력 가운데 공병우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 이후 공병우의 선택을 설명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단서를 준다. 1931년에 이나모토 카메고로는 주임교수 자리를 조교수였던 무토 타다츠구(武藤忠次)에게 넘겨주었고, 신성우는 이 해 의학박사학위를 땀으며 무토가 승진하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아 조교수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32년에 신성우는 안과학교실로 소속을 옮겼다. 한편 공병우는 1930년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일람』의 안과학교실 직원 명단에서 사타케와 최규옥(崔圭鈺, 강사)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는데, 1931년에는 사타케의 바로 옆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신성우가 안과학교실로 옮기고 나자 1932년부터는 다시 세 번째가 되었다(경성의학전문학교, 1932: 126). 단순히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신성우의 입국이 공병우가 경의전을 떠나게 된 원인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례에 드러난 현상만 놓고 보면 신성우가 이적한 뒤 공병우는 안과학교실에서 조수보다 높은 위치로 올라가지 못했고, 결국 독립하여 교실을 떠나게 된 것이다.

경의전을 떠나기 직전인 1935년 4월 5일에서 18일까지, 공병우는 안과학교실 강사로 임용되었다(기창덕, 1995: 155). 임용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아 강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퇴직 직전에 형식적으로 진급시켜 주는 것은 당시 경의전이나 경성제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관례인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기도 하고 퇴직 후의 다른 직장에서 최종 직위에 맞춰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주는 배려이기도 했다. 비록 실제 강사직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처럼 보통의 모교 출신 의국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공병우가 퇴국할 시점에는 경의전 안과학교실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공병우가 해주에 가게 된 것은 독립신주의의원 시절 원장으로 모셨던 무라타 미키오(村田美喜雄)가 당시 독립해주의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이다. 해주에서 공병우는 촉탁(囑託)직 안과 주임으로 월 120원이라는 넉넉한 급료를 받을 수 있었고(조선총독부, 1935; 1936), 썩 사냥을 즐길 정도로 생활

의 여유도 가졌다(공병우, 1989: 61).

해주로 옮긴 이듬해, 공병우는 드디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박사학위로 연결시킬 기회를 잡게 되었다. 1936년 일본안과학회 총회는 4월 2-3일 이틀에 걸쳐 도쿄의 게이오대학에서 열렸는데, 공병우는 여기에서 경의전과 경성제대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중심성 맥락망막염의 원인이 빛인지 감염(결핵)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공병우의 연구는 논쟁 당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광선설을 주장하던 나고야(名古屋)제국대학 의학부의 오구치 추타(小口忠太) 교수와 치바(千葉)의과대학의 이토 야에지(伊東弥恵治, 1891-1955) 교수는 각각 사타케에게 공병우의 논문을 자신의 학교에 제출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공병우는 사타케와 상의하여 오구치에게 논문을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1936년 4월 23일 “소위 중심성 맥락망막염(마스다 씨)의 본태에 관한 실험적 연구[所謂中心性脈絡網膜炎(増田氏)の本態に関する実験的研究]”라는 제목으로 나고야제국대학에 의학박사 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 논문 원고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안과학교실 및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병리학교실에서 1930년 7월부터 1936년 4월까지 연구”하였다는 설명이 붙었으며 도쿠미즈 요시토미와 사타케 슈이치 두 사람 모두 지도교수로 기재되었다(공병우, 1989: 59-60).

오구치 추타(1875-1945)는 사이세이가쿠샤(濟生学舎, 오늘날 니혼의과대학의 전신)를 1893년 졸업하고 안과로 공부를 계속하여, “일본 근대 안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도쿄제국대학 의학부의 고모토 주지로(河本重次郎, 1859-1938) 아래에서 수학했다. 1895년부터 육군 소속으로 타이완과 도쿄 등에서 봉직하고, 1911년에는 육군 의학교와 남만주의학당 교수를 거쳐 1912-1914년 독일 유학을 떠났다. 1919년 아이치(愛知)현립 의학교 교수로 취임하여, 학교가 아이치의과대학, 나고야의과대학, 나고야제국대학 의학부로 개편되는 가운데 꾸준히 봉직하여 1939년 나고야제국대학에서 정년퇴임하였다. 1929년에서 1937년까지는 국제 안과학회(International Council of Ophthalmology)의 회원이었다. 주요 업적으로는 1905년 야맹증의 이형(異型)을 발견한 일이

있다. 이것은 뒷날 “오구치병”으로 이름 붙였고, 오구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33년 학사원상을 수상했다. 1911년에는 “오구치씨 색신검사표(小口氏色神検査表)”를 개발하기도 했다. 즉 1936년 무렵의 오구치는 환갑을 넘긴 일본 안과계의 원로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지론을 뒷받침하는 실험 성과로 공병우의 발표에 주목한 것이다.

공병우가 4월에 나고야로 보낸 논문은 같은 해 7월 4일 나고야제국대학 교수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하였고, 9월 2일 정식으로 공병우에게 의학박사학위(학위 번호 298호)가 수여되었다. 검정시험 출신으로 제국대학의 박사학위까지 따낸 것은 일제강점기 의료를 통틀어도 드문 일이었다. 더욱이 기초의 학이 아니라 임상 안과를 전공하여 박사를 받은 것은 한국인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었으므로 한반도의 언론들은 공병우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7월 4일 교수회의에서 논문 통과가 결정되자마자 『매일신보』와 『동아일보』 등은 “조선에서 처음인 안과박사”, “도규계(刀圭界)의 명랑보(明朗報)”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소식을 전했다(그림 1).

그림 1. 공병우가 나고야제국대학의 심사를 통과하여 한국인 최초의 안과 전문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신문기사

Figure 1. Newspaper report on Kong's doctorate, conferred by Nagoya Imperial University, Japan, as the first in ophthalmology among Koreans



(『매일신보』, 1936년 7월 8일)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의학박사 학위를 딴 한국인은 338명에 이른다. 하지만 공병우의 사례는 그 중에서도 독특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공병우를 나고야제국대학 의학부(전신인 아이치 의과대학과 나고야 의과대학을 포함)에서 학위를 딴 이들과, 다른 한편으로 평양의학강습소(후신인 평양의학전문학교 포함) 출신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딴 이들과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하자. 나고야제국대학에서 일제강점기에 의학박사가 된 한국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열네 명이다. 이 중 세 명은 본교 출신이며, 나머지 열한 명은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유학 온 경우인데 경의전이 다섯 명, 세브란스의전이 세 명, 그리고 대구의전이 두 명이다. 2년제 의학강습소 출신은 열네 명 가운데 공병우가 유일하다.

표 1. 일제강점기 나고야제국대학(전신을 포함) 의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딴 한국인 명단

Table 1. Korean doctors of medicine from Nagoya Imperial Universi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ism

이름	학위 취득 일자	출신 학부
박태환	1932. 12. 1	나고야의과대학
한득훈	1935. 12. 23	나고야의과대학
공병우	1936. 9. 2	평양의학강습소
이재복	1939. 2. 4	경성의학전문학교
조진석	1940. 3. 25	경성의학전문학교
장기려	1940. 11. 14	경성의학전문학교
박난수	1941. 6. 21	나고야제국대학 의학부
전영을	1942. 9. 16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이주걸	1943. 2. 6	대구의학전문학교
배중호	1943. 2. 20	대구의학전문학교
김희규	1943. 2. 20	경성의학전문학교
김영걸	1943. 7. 14	경성의학전문학교
정홍섭	1944. 3. 15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박석련	1945. ??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기창덕, 1995: 347-348)

한편 일제강점기 평양의전 출신의 의학박사 취득자는 아래 <표 2>와 같이

스물 네 명인데, 이 중 열세 명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땀고 나머지 열한 명은 나고야, 치바, 구마모토, 나가사키 등 일본 각지의 의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공병우는 평양의학강습소 출신으로 가장 먼저 의학박

표 2. 평양의학전문학교(전신인 평양의학강습소 포함) 졸업생 중 한국 출신 의학 박사학위 취득자 명단

Table 2. Korean graduate from Pyongyang Medical College (and its predecessor) who later acquired doctoral degrees in medicin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ism

이름	의학교 졸업 연도	학위 취득 일자	학위 취득 대학
공병우	1926	1936. 9. 2	나고야제국대학
정준모(鄭準謨)	미상	1939. 2. 15	교토제국대학
정숙영(鄭塾榮)	1933	1940. 3. 16	치바의과대학
이상요(李相堯)	1933	1940. 7. 31	경성제국대학
나가타(長田圭生)	미상	1942. 1. 15	구마모토의과대학
노덕삼(盧德三)	1933	1942. 10. 27	경성제국대학
오카(岡曉)	미상	1943. 1. 27	교토제국대학
다카야마(高山成久)	미상	1943. 2. 8	경성제국대학
김병철(金炳喆)	미상	1943. 2. 13	경성제국대학
마츠시마(松島信雄)	미상	1943. 4. 17	규슈제국대학
황병건(黃柄建)	미상	1943. 12. 17	나가사키의과대학
이근배(李根培)	1936	1944. 4. 2	나가사키의과대학
이광교(李光敎)	1935	1944. 7. 31	치바의과대학
최기현(崔基鉉)	1937	1945. 6. 29	경성제국대학
가나모리(金森仁雄)	미상	1945. 8. 8	나가사키의과대학
이종원(李鍾元)	1937	1945. 9. 8	경성제국대학
주민순(朱敏淳)	1939	1945. 9. 8	경성제국대학
김동준(金東俊)	1939	1945. 9. 8	경성제국대학
황명엽(黃明燁)	1936	1945. 9. 8	경성제국대학
이시채(李時采)	1937	1945. 9. 8	경성제국대학
권창정(權昌貞)	1935	1945. 11. 1	경성제국대학
전극렬(全克烈)	1939	1945. 11. 1	경성제국대학
이종진(李宗珍)	1939	1945. 11. 9	경성제국대학
시게무라(重村昌宏)	미상	1945. 11. 16	규슈제국대학

(기창덕, 1995: 276-279)⁷⁾

7) 이 표에 수록된 인물은 기창덕(1995)이 일본 문부성의 『일본박사록』에서 원적(原籍)이 “조선”으로 기재된 이들을 뽑은 것이다. 창씨개명 이전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부득이 일본식 이름으로 남겨 두었다 한다.

사학위를 땀고, 2년제 평양의학강습소 시절의 졸업생으로는 유일한 의학박사가 되었다.

또한 공병우의 학위는 실제로 해당 학교에 유학하지 않은 채 논문만 제출하여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그런 사례가 드문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의 의학박사 가운데는 실험을 대부분 또는 전부 국내에서 하고 일본의 대학에 그 결과만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일본 제국대학의 학위제도가 애초에 구체적인 연구 문헌 뿐 아니라 연구자의 경력과 총체적인 업적을 인정하여 학위를 주는 것을 용인했으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파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선례가 있고 드물지 않게 일어나던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백인제도 1928년 아무 연고가 없는 도쿄제국대학에 논문만 제출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백인제의 지인들 중 정확하게 아는 이가 없으며, 백인제를 지도한 경의전과 조선총독부의원의 수뇌부가 대부분 도쿄제대 출신들이었다는 점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백인제박사전기간행위원회, 1999: 90-91).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백인제의 경우에는 이미 경의전 교수로 내정된 상황이었으므로, 경의전의 선배 교수들이 실력을 보증하는 것을 전제로 연고가 있던 도쿄제대에 형식적인 논문 심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타케와 도쿠미즈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공병우가 논문만 제출하고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다만 백인제와 공병우의 경우가 서로 다른 것은, 백인제의 논문 통과는 교수로 내정된 뒤의 일인데 비해 공병우의 논문 통과는 반대로 교실을 떠나 임상 의사의 길을 걸기로 결정한 뒤의 일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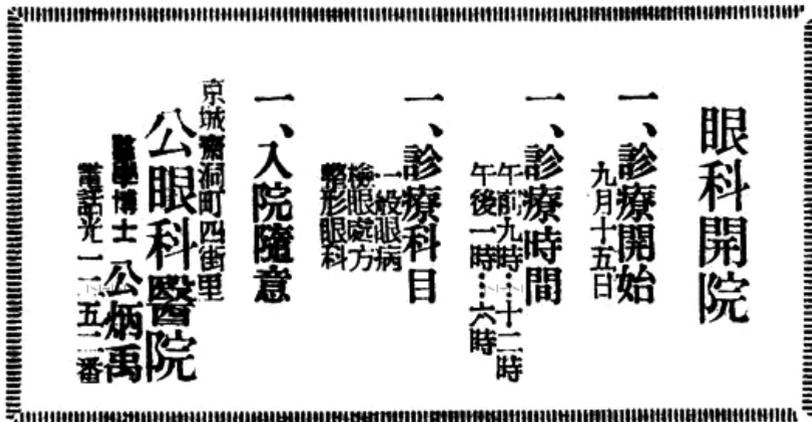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병우의 박사학위 취득은 여전히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다. 제국대학이나 의학전문학교 출신 학생들이 유학하지 않고 학위를 받는 일이 더러 있기는 했지만, 공병우와 같이 의학강습소 출신으로 의학전문학교와 제국대학의 벽을 뚫고 들어와 마침내 제국대학의 박사학위까지 받은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5. 학자의 꿈을 접고 ‘명사’로

1) 공안과, 최초의 한국인 안과 전문 의원에서 안과의 대명사가 되다
 만 스물아홉에 한국인 최초의 안과 전문 의학박사라는 화려한 호칭을 얻었지만, 공병우의 상황은 “노구치 히데요 같은 세계적인 세균학자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계속 추구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그 스스로도 교실을 떠날 무렵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공병우에게 박사논문은 연구자로서의 첫걸음이라기보다는 연구자로서의 짧은 경력을 갈무리하는 총괄의 의미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박사학위를 따고 약 일 년 뒤, 도립의원의 안과주임이라는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공병우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1937년 9월 15일, 한국인이 운영하는 최초의 안과전문 병원 “공안과의원”이 재동(齎洞) 사거리에 문을 열었다<그림 2>.

그림 2. 공안과의원 개원을 알리는 신문 광고
 Figure 2. Advertisement for the opening of Kong's Eye Clinic



(『동아일보』, 1937년 9월 14일)

안과를 독립된 병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어서 공병우는 주변의 의견을 구하러 다녔다. 대부분은 만류했지만 백인제는 “공 군 같은데 성공할 수 있으니 해 보”라고 격려해 주었고, 이에 공병우도 개업 결심을 굳혔다고 전한다(공병우, 1989: 62). 공안과는 재동(현 안국동) 사거리의 벽돌집 2층 일부를 빌려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안과를 찾는 환자가 많지 않아 경영이 어려울 정도였으나, 차츰 단골 환자가 생겨나 더 변화한 서린동으로 병원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⁸⁾ 서린동의 요리점 “동명관” 건물을 내과의사 백기호와 공동 구입하여 “공안과”와 “백내과”를 한 건물에서 운영하게 된 것이다(공병우, 1989: 63).

공안과의 성공은 공병우가 성실하게 노력했을 뿐 아니라 한국인 안과의사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공안과가 한국인 환자들의 수요를 선점한 데 말미암은 것이다. 특히 공안과가 급성결막염 같은 유행성 안질환의 치료에 능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변종 급성결막염이 유행한 일이 있는데, 공병우는 큰 종합병원에서 종래와 같이 점안약을 넣어 주어 도리어 증세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공안과에서는 눈을 자극하지 않도록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더니 그것이 효과를 보았고 그 소문이 퍼져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에 병명 같은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안과 전문 병원이 갖는 전문성과 유연성이 발휘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윽고 공안과는 “공박사가 떼돈을 가마니로 벌어들인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자리를 굳혔고, 각계 명사들도 눈을 치료받기 위해 공안과를 찾았다(공병우, 1989: 65). 공병우도 뒤에서 살펴 보듯 대중 매체에 안과 관련 정보를 활발히 기고하여 대표적인 안과의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8) 공병우의 자서전에는 공안과 개원이 1938년, 서린동 이전이 1939년이라고 적혀 있으며 현재 공안과의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적혀 있다. 하지만 당시 신문지면을 검색해 보면 <그림 2>와 같이 공안과 개원은 1937년 9월 15일의 일이며, 1940년 8월 9일자 동아일보에도 “경성부 재동 십자가”에 위치해 있다는 광고가 실려 있다. 따라서 신문 자료를 우선 기준으로 삼으면 서린동 이전은 1940년 하반기 이후의 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안과의 명성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과 한국전쟁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건재했다. 공병우를 후원하던 일본인 스승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광복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공병우의 또 다른 자산이었던 평안도 인맥은 계속 그에게 힘이 되었다. 예를 들어 광복 직후 백인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 교수진들이 경의전을 재건하려 했을 때, 백인제는 공병우에게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공병우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의과대학(경의전의 후신)의 안과 주임교수 자리를 잠시 맡기도 했다(공병우, 1989: 72-74).⁹⁾ 또 1946년 소위 정판사(精版社) 위조지폐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명 논란이 일자 재판부가 백인제와 공병우를 피고인들을 검진할 의사로 초빙한 일이 있는데(자유신보, 1946), 이 때 두 사람이 함께 초빙된 것도 둘의 인연을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공병우는 자신의 명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물론 광복 후에도 가난한 환자에게는 무료 수술을 해 주고 때때로 수입 의안이나 컨택트렌즈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벌였다.¹¹⁾ 이는 다시 언론에 보도되어 공안과의 인상을 좋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경향신문, 1956; 의사시보, 1956; 동아일보, 1964; 동아일보, 1966). 언론도 기사의 등장인물이 눈을 다치는 등 안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때면 으레 공안과를 찾곤 했으며, 공안과에서 새로운 시술이나 장비를 도입하면 관심있게 보도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3〉은 1964년 4월 21일의 『경향신문』 기사인데, 이 기사는 “닭눈 이식 성공, 각막

9) 하지만 그는 이후 서울의과대학이 경성대학(경성제국대학의 후신) 의학부와 통합하여 서울 학교 의과대학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채 손을 떼고 말았다. 공병우는 자서전에서 “수술 환자에게 감염된 매독균”이 발병하는 바람에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느라 대학 일에 신경을 쓸 수 없었다고 적고 있지만, 경의전 출신의 다른 교수들과의 관계 문제 등을 감안하면 애초에 공병우가 주임교수로 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을 것이고, 그것을 잘 알고 있던 공병우가 병을 빌미로 자연스럽게 학교 일에서 발을 뺀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10) 공병우는 이 때 피고인 송언필의 실명이 고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병인 당뇨 때문이라는 판정을 내렸는데, 뒷날 한국전쟁 초기에 이 때문에 인민군에게 체포되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다.

11) 한편 무료 개인수술은 사타케가 경의전 부속병원장을 지낼 때 활발히 진행하던 행사이기도 하다. 「눈 뜬 장님만 二百餘 京醫專의 巡廻開眼手術好成績」, 『매일신보』, 1942년 11월 19일.

회전 수술도: 공박사가 세계에 밝은 빛”이라는 기사를 통해 공안과에서 시력을 잃었던 환자에게 닭의 각막을 이식하여 시력을 일부 회복했다든가, 한 쪽에 상처가 있는 각막을 회전해 자가이식하여 시야를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했다(경향신문, 1964). 비록 이것들이 획기적인 임상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이와 같은 보도 태도를 통해 당시 언론이 공안과를 최신 안과학 지식의 통로로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공안과의 특이한 임상 사례에 대한 신문 보도
Figure 3. Newspaper coverage on unusual clinical cases by the Kong's Eye Clinic



(「경향신문」, 1964년 4월 21일)

그 결과 1950년대 중후반 무렵의 공안과는 “안과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상을 자랑했다. 예컨대 1959년 눈의 날(11월 1일) 기념 행사가운데는 주요 학교 또는 병원들이 각자 수술반을 꾸려 지방을 순회하는 무료 개안수술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해의 수술반은 신문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반, 연세대학반, 이화대학반, 국립중앙의료원반, 공안과반” 등 다섯 개가 조직되었다(동아일보, 1959). 이는 공안과가 적어도 안과 임상에 있어서는

주요 종합대학병원과도 비슷한 위치를 주장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도 있다. 이승만 정부 말기인 1958년, 경찰은 야당 연설회의 참석 인원 추계를 둘러싸고 민주당 및 언론과 신경전을 벌였다. 그런데 경찰은 1만7천 명, 야당은 8만 명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자 경찰에서 기자들에게 “모두들 공안과 병원에 가야 한다”고 비아냥댔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58). 이 일화는 공안과의 의술의 수준이나 의학적 역량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대중이 공안과를 “안과의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다른 어떤 사례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다.

공병우는 공안과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안의 손꼽히는 부자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1970년과 1971년 납세 실적에서 각각 개인 의사 부문 2위에 올랐다(매일경제, 1971; 동아일보, 1972). 이 당시 자비를 들여 뛰어난 타자기 사업이 표준화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적잖게 손해를 보았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안과의 운영 실적은 더 두드러져 보인다.

2) ‘명사’ 공병우의 사회 활동

공병우는 1930년대 후반 이래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며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 공병우의 위치는 단순히 성공한 개업의가 아니라, 사회 현안에 언제나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이 비중 있게 회자되는 이른바 “명사”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고등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일제강점기에는 의학박사 학위만으로도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명사로 대우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광복 후 고등교육이 확충되고 박사가 늘어난 뒤에도 공병우의 성가는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공병우는 이렇게 얻은 명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각종 주제에 대해 발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우선 공병우는 대중 매체에 의학 상식과 의학 상담 등을 꾸준히 실었다. 앞서 말했듯 일단 공병우가 명성을 얻은 뒤에는 매체들이 먼저 공병우와 공안과를 찾기도 했지만, 공병우 자신도 기고의 기회를 마다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도 공병우는 『매일신보』의 “유한보건 지상병원(紙上病院)”의 필진으

로 이름을 올렸다. 외과의 백인제와 정구충, 내과의 김동익과 박병래, 소아과의 이선근 등 당대 의학계의 거물들이 모두 필진에 포함되었으며, 안과에는 공병우와 경의전의 신성우 두 사람이 이름을 올렸다(매일신보, 1939). 그리고 공병우는 “여름과 눈”(1938년 7월 28-29일), “독서와 눈의 위생”(1941년 11월 7-8일), “의학을 가정화하자”(1942년 2월 4-5일), “시력을 보호하자: 속기 쉬운 가정근시”(1944년 9월 30일) 등 지면 상담 외에도 의뢰받은 원고를 자주 『매일신보』에 실었다. 광복 후에도 공안과 이름으로 『경향신문』 등 신문의 의학 상담에 답을 실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1964년의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와중에 실린 “최루탄은 위험: 전문의들 경고한다”(『경향신문』, 1964년 4월 22일)는 기사와 같이 강력 사건이나 시위 진압 등에서 눈을 다친 이들이 있을 때도 공안과의 의견이 으레 첨부되곤 했다.

또한 공병우는 의학 영역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대한 계몽의 성격을 지닌 글들을 간간이 발표했다. 예를 들어 1940년대의 『매일신보』 문화면에는 여러 명사에게 돌아가며 200자 안팎의 짧은 단상을 받는 기사가 있었다. 주로 자신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개조하여 생활의 근대화를 꾀하고 있는지 전하는 계몽적인 기사였는데, 관제 신문인 『매일신보』의 성격을 감안하면 사실상 총독부가 주도한 생활개선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기사였다. 공병우가 이 지면에 실은 글들은 “나의 자원애호”(1941년 10월 17일), “나의 저온생활”(1941년 12월 9일), “나의 저축훈”(1942년 1월 16일), “나의 신생활계획”(1942년 2월 21일) 등이 있다. 짧은 글인데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내용도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기르자는 것이라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없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개적 지면을 받아 자신이 믿는 바를 대중에게 설교할 기회를 계속 잡게 되면서, 공병우는 차츰 자신의 전문 영역인 의학의 경계를 넘어 각종 사회 문제에 관여하고 의견을 내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위 생활 개선에 대한 공병우의 소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속도와 효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1953년부터 1955년까지 미국에 다녀온 뒤 『의사시보』에

실은 “미국 안과계 근황”이라는 글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모든 일에 더욱 더 ‘스피드’를 나타내겠다는 노력이 굉장합니다”라는 감탄을 숨기지 않았고(공병우, 1955b), 또 “미국은 어디나 구두를 벗고 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거리가 깨끗”하며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 반대로 회사 사무실이나 병원보다도 더욱 깨끗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깨끗한 곳이 변소”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미국의 위생과 청결을 모범으로 제시하였다(공병우, 1955a).

이는 미국과 비교되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맹렬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1963년 잡지 『새가정』에 실은 글 “나는 이렇게 생활을 개선하였다”에서, 공병우는 “머리를 서양 사람과 같이 깎고, 서양 사람 모자를 쓰고, 양복을 입고, 서양 신을 신고 다니는 등 … 원숭이와 같이 흉내를 다 내고 다니면서 가정에 들어가면 한국식 뒤떨어진 옛날 방식으로 살아 나가니 현대 문명과는 보조가 맞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 각자 자신이 먼저 의식주 생활 방식을 갈아보기 전에는 잘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공병우, 1963a: 47). 이는 그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줄곧 견지해 온 태도이기도 하다. 공병우는 1965년의 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의 이목이 두려워 허례허식에 얽매어 사는 이중생활상을 태평양에 몽땅 버리고”, 돌아오자마자 “도착한 날로 한복을 모조리 이웃이나 일가에게 나눠준 다음, 장독을 부쉬 없애고 변소를 수세식으로 고쳐 안방 옆에다 당겨 놓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한국일보, 1965). 온돌 역시 “원시적 생활 방법으로서 비능률적이고 비위생적”(공병우, 1963b: 100)이라며 없애 버리고는 서양식 입식 구조로 집을 개조했다. 이와 같은 반(反)전통적인 태도는 열렬한 한글전용론자이자 한글타자기 발명가라는 대중이 기억하는 공병우의 또 다른 모습과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한글타자기를 쓰고 한글을 전용할 것을 주장한 근본적인 이유도 속도와 효율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공병우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전통이나 외래냐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언행은 일반인이 했다면 별다른 호응을 얻기 어려웠겠지만, “자수성가한 명사”인 공병우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

목을 받고, 어느 정도 권위를 갖고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그림 4. 공병우를 “한국의 유아독존” 열 명 중 하나로 소개한 『한국일보』 기사
 Figure 4. Newspaper *The Hankook Ilbo* article introducing Kong as one of the “ten most obstinate men in Korea”



(『한국일보』, 1965년 4월 11일)

이렇게 그의 속도와 효율에 대한 집착이 형성되고 강화된 과정을 돌아보면, 공병우가 1940년대 말 갑자기 한글 타자기의 개발에 뛰어든 것도 돌출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공병우는 영문만큼 빠르고 효율적인 문서 생산을 위해 한글타자기가 필요했고, 시중에서 그가 원하는 타자기를 찾지 못하자 직접 영문타자기를 개조하여 한글 타자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타자기를 활용한 타자기술 교육을 공안과에서 진행하던 맹인재활사업의 한 항목으로 추가함으로써(동아일보, 1975), 공병우에게 한글타자기 사업은 외도가 아니라 안과의사로서의 정체성과 빈틈없이 들어맞는 핵심 사업이 되었다.

직접 주장을 내는 것 뿐 아니라, 공병우는 자신의 부를 활용하여 자신이 공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후원하기도 했다. 개업의로 성공한 뒤에는 일찍이 의학도 시절 자신을 도와주었던 백인제를 위시한 평안도 인맥을 후원하였다. 백인제는 공병우와 함께 사냥을 즐기던 사이로, 광복 직후 “조선업도(獵

道)협회”를 재건하기도 했다(백인제박사전기간행위원회, 1999: 252; 자유신보, 1945). 공병우도 백인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서재필 전기를 출간하기 위해 “수선사(首善社)”라는 출판사를 만들 때 자본금의 절반을 보태는 등 백인제의 사업에 협조하였다(공병우, 1989: 75-76). 1960년대 한글타자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신한 뒤에는 자신의 타자기를 지지하는 개인과 단체를 도왔으며, 넓은 의미의 우군으로 한글학회 등 한글 운동 단체에도 꾸준히 지원을 했다. 말년에 개인용컴퓨터(PC)용 한글 문서편집기를 개발하는 청년들에게 연구 공간과 인력을 지원하여 “한글과컴퓨터”사를 창업할 수 있도록 도운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6. 결론: 한국의학사에서 공병우의 자리

공병우는 말년의 인터뷰에서 “사실 나는 대학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게 꿈이었어요”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안과세균학을 계속 공부하러 선진국에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2차대전이 일어나서 유학길도 막혀 개업을 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다(공병우 · 박택규, 1993: 75). 독립해주의원을 그만둘 무렵 실제로 유학을 갈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가 말년까지도 연구자로서의 삶이라는 가지 않은 길에 계속 미련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공병우는 개업 후 병원 운영과 타자기 개발 등 각종 사업에 분주한 와중에도 『中央眼科医報』와 『臨床眼科』 등 일본의 안과 관련 학술지에 꾸준히 임상보고를 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임상보고들은 “면봉에 의한 각막 이물질 제거[綿棒による角膜異物除去]”(1939b), “의안 장용을 위한 공막 후반부 절제술[義眼装用の為の鞏膜後半部切除術]”(1957), “누도 폐색에 대한 근형 비닐관과 인공 비루관의 사용법[涙道閉塞に対する根型ビニール管及び人工鼻涙管の使用法]”(1965), “벨 흡인기에 의한 주변 홍

채 절제법[バル吸引器による周辺虹彩切除法](1965), “나의 누도기능 검사법에 대하여[私の涙道機能検査法について]”(1965) 등 세세한 임상적 발견을 다루는 것들이었고 분량도 짧으면 한 쪽, 길어야 서너 쪽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논문은 공병우에게는 안과학계와 자신을 이어주는 마지막 연결 고리 같은 것이었고, 공병우는 이들 임상 보문에 대해서도 상당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보문이 일본에서 인용되었다는 사실 등을 강조하곤 하였다(공병우·박택규, 1993: 76).

1939년 공병우가 유한양행학술부를 통해 펴낸 『신소안과학(新小眼科学)』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그가 돈과 명성에서 아쉬울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 교과서를 굳이 저술한 것은, 임상의로서의 명성과 무관하게 학자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공병우 스스로도 “전적으로 수험용 참고서”(공병우, 1939a: 2)라고 평하는 책의 추천사를 사타케나 도쿠미즈도 아니고 구태여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안과학교실의 하야노 류조(早野竜三) 교수에게 부탁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병우가 경의전 안과학교실 조수를 지냈고 경성제대 병리학교실에서 안과학을 주제로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야노의 서문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공병우의 바람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야노는 서문에서 “듣기로는(聞くに) 저자는 독학으로 수험 성공하였고, 더욱 나아가 각고면려를 이겨내어 안과에 대성한 입지전 중의 독학자(篤学者)”라고 공병우를 소개함으로써 자신과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공병우, 1939: 1). 그렇다면 공병우가 의학자의 길에 대해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당대 의학계가 그의 학자로서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던 데 대한 반작용은 아닐까? 학맥이 없는 의학강습소와 검정시험 출신, 무급 연구원을 자칭하여 얻어낸 연구 성과, 연고 없는 학교에서 분투하여 취득한 박사학위, 개원으로 쌓아올린 부와 명성 같은 것들은 세월이 지난 후 제삼자의 눈으로 볼 때는 영웅담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동료들과 이질감을 쌓는 요소들이었을 수도 있다.

의사로서 공병우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당대 의학의 최전선에서 어떤 학술적 기여를 했는가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근대 의료의 초창기에 후속 세대를 길러내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일 수도 있고, 개인 병원의 운영을 통해 당대의 사람들이 근대 의료를 접할 기회를 넓히는 데 얼마나 공헌했는가일 수도 있고, 명사이자 엘리트로서 사회적 담론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일 수도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공병우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며, 한국 근대의학사에서 그가 차지하게 될 자리가 어디인가에 대한 의견도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은 공병우가 의학자로서 남긴 업적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일 뿐이며, 최종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추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 밝힌 사실들만 놓고 보더라도, 그가 성실한 실험을 통해 일본 제국대학의 박사학위 심사를 통과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식민 치하의 한국인 의학도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비교적 협소한 전문분과인 안과에서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의학박사로 성장함으로써 안과학을 개척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안과 의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중들 사이에 안과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도 공병우의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공병우의 경력 형성 과정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직후 한국 의학과 의료의 단면을 보여준다. 공병우가 의학강습소를 졸업하지 않고도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연고가 없었지만 경성의전과 경성제대에서 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경성을 벗어나지 않고도 나고야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 등은 모두 오늘날 한국의 의료제도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일 것이다. 이와 같은 성장 경로가 가능했던 것은 의사검정시험제도, 일본식 강좌 체제, 제국대학의 네트워크 등 일제강점기 식민지 의료체제의 특징들 때문이다. 또한 공병우가 안과 진료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 당시 의료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그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사회 문제를 논하는 명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일제강점기 의료인의 위상이 높았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한다. 따라서 공병우의 사례는 특별한 개인의 돌출적인 예외라기보다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의료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근현대 의료사 연구에 유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색인어: 공병우, 공안과, 경성의학전문학교, 일제강점기 의학교육,
의사의 사회적 지위

투고일 2013. 11. 7	심사일 2013. 11. 13	게재확정일 2013. 12. 9
-----------------	------------------	-------------------

참고문헌 REFERENCES

〈자료〉

京城醫學專門學校,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京城: [s.n.],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경향신문, 「의안 백개 기증: 미국맹인협회서」, 『경향신문』, 1956년 1월 6일.

공병우, 「미국 안과계 근황」, 『의사시보』, 1955년 6월 24일.

공병우, 「미국 안과계 근황」, 『의사시보』, 1955년 7월 8일.

공병우, 「나는 이렇게 생활을 개선하였다」, 『새가정』 10-1, 1963a.

공병우,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 『새가정』 10-2, 1963b.

공병우, 『나는 내 식대로 살아왔다』(서울: 대원사, 1989).

공병우 · 박택규, 「원로와의 대담」 한글문화원장 · 전 공안과원장 공병우 박사: 내 여생 마지막 일은 남북글자판 통일, 『과학과기술』 294, 1993.

동아일보, 「의전우등생」, 『동아일보』, 1927년 3월 25일.

동아일보, 「오산고보 부속의원 확충: 수술기계도 구입」, 『동아일보』, 1930년 9월 16일.

동아일보, 「수혈에 관한 연구로 조진석씨 의박에: 나고야제대에서 논문 통과」, 『동아일보』, 1940년 2월 15일.

동아일보, 「[5.2 낙서] 군중 계수에도 큰 차, 초조하게 신경쓰는 경찰: 야당 강연회 싸고 ‘눈’ 수술론까지」, 『동아일보』 1958년 5월 24일.

동아일보, 「1일 눈의 날」, 『동아일보』 1959년 10월 29일 석간.

- 동아일보, 「[난류] 서울 맹학교 박순자(19, 중학2년)양은 개안수술을 받고…」, 『동아일보』, 1964년 7월 11일.
- 동아일보, 「시력 나쁜 극빈환자 무료진료: 서울 ‘라이온즈 클럽’서 운동 벌여」, 『동아일보』, 1966년 4월 22일.
- 동아일보, 「삼양사 8위로: 고액 납세순위 정정」, 『동아일보』, 1972년 3월 7일.
- 동아일보, 「정상인을 앞지른 맹인의 타자기술: 전국 시각장애자 타자기술 경기대회 언저리」, 『동아일보』, 1975년 11월 6일.
- 동아일보, 「노익장 동창생(19) 민족정신의 본산 오산학교」, 『동아일보』, 1982년 6월 16일.
- 매일경제, 「70년의 고액납세자」, 『매일경제』 1971년 3월 3일.
- 매일신보, 「의학강습합격자」, 『매일신보』, 1924년 4월 4일.
- 매일신보, 「의학강습소 졸업식」, 『매일신보』, 1925년 4월 1일.
- 매일신보, 「의사시험합격자」, 『매일신보』, 1926년 10월 30일.
- 매일신보, 「사계 권위를 망라한 조선의학회 총회: 이십일 성대 의학부서」, 『매일신보』, 1930년 9월 20일.
- 매일신보, 「평양의학전문 제1회 졸업식: 28일 성대 거행」, 『매일신보』, 1933년 3월 31일.
- 의사시보, 「맹인에 무료의안: 공안과병원에서」, 『의사시보』, 1956년 1월 8일.
- 자유신보, 「조선 엽도협회 새출발」, 『자유신보』, 1945년 11월 13일.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관보』(京城: 朝鮮總督府, 1923. 4. 9; 1926. 3. 15; 1927. 5. 26).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및 부속기관 직원록』(京城: 朝鮮總督府, 1927; 1928; 1935; 1936), <http://db.history.go.kr/front/dirservice/JW/listMainJW.jsp>. 검색일: 2013. 10. 15.
- 조선총독부, 『조선도립의원 요람』(경성: 조선총독부, 1937).
- 講談社[고단사], 『日本人名大辞典』(東京: 講談社, 2009).
- 公炳禹, 「朝鮮人健康結膜囊内ニ於ケル細菌学的研究」, 『朝鮮医学会雜誌』 20-11, 1930.
- 公炳禹, 「朝鮮人健康結膜囊内ニ於ケル細菌学的研究」, 『京城医学専門学校紀要』 2-9, 1932a.
- 公炳禹, 「所謂中心性脈絡網膜炎(増田氏)ノ本態ニ関スル実験的研究」, 『京城医学専門学校紀要』 2-11, 1932b.
- 公炳禹, 「所謂中心性脈絡網膜炎(増田氏)ノ本態ニ関スル実験的研究(第二報) 有色家兔及ビ犬ニ於ケル光力学的中心性脈絡網膜炎ノ研究」, 『京城医学専門学校紀要』 3-2, 1933.
- 公炳禹, 「中心性脈絡網膜炎の原因に関する北原氏の論著を読んで」, 『中央眼科医報』 26-5, 1934a.
- 公炳禹, 「所謂中心性脈絡網膜炎(増田氏)ノ本態ニ関スル実験的研究(第三報) 光力学的中

- 心性脈絡網膜炎ト肝臟機能トノ關係, 『日本眼科学会雑誌』 38, 1934b.
- 公炳禹, 「前頭蓋底骨折ヲ伴ヘル眼外傷ノ一例(図6)」, 『実験眼科雑誌』 第17年(158), 1934c.
- 公炳禹, 「中心性脈絡網膜炎(増田氏)ノ本態ニ關スル実験的研究一(表7)(第四回報告) 滯性黃疸ニ於ケル光力学的内因ノ成立殊ニソレト「ポルフィリン」トノ關係ニ就テ」, 『京城医学専門学校紀要』 5(2), 1935.
- 公炳禹, 「所謂中心性脈絡網膜炎(増田氏)の本態に關する実験的研究」, 名古屋医科大学博士論文, 1936.
- 公炳禹, 『新小眼科学』(京城: 柳韓洋行學術部, 1939a).
- 公炳禹, 「綿棒による角膜異物除去」, 『中央眼科医報』 31-12, 1939b.
- 公炳禹, 「義眼装用の為の鞏膜後半部切除術」, 『臨床眼科』 11-8, 1957.
- 公炳禹, 「涙道閉塞に対する根型ビニール管及び人工鼻涙管の使用法」, 『臨床眼科』 19-5, 1965a.
- 公炳禹, 「ベル吸引器による周辺虹彩切除法」, 『臨床眼科』 19-6, 1965b.
- 公炳禹, 「私の涙道機能検査法について」, 『臨床眼科』 19-8, 1965c.
- 本田六介[혼다 로쿠스케] 編, 『日本医籍録』 第二版(東京: 医事時論社, 1926).
- 日本眼科学会, 「過去の日本眼科学会總會一覽」, http://www.nichigan.or.jp/member/syukai/sokai_past.jsp, 검색일: 2013. 10. 3

〈연구논저〉

- 기창덕, 「의학교육의 현대화 과정」, 『의사학』 3-1, 1994.
-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서울: 아카데미아 1995).
- 박윤재, 「일제초 의학교육기관의 정비와 임상의사의 양성」, 『의사학』 13-1, 2004.
- 박이택, 「조선총독부의 인사관리제도」, 『정신문화연구』 29-2, 2006.
- 백인제박사전기간행위원회, 『선각자 백인제』(서울: 창작과비평사, 1999).
- 이현일, 「일제하 公立医学専門学校の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2012.
- 이흥기, 「한국 근대 의사직의 형성과정(1885~1945)」,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지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50년사」, 『의사학』 5-1, 1996.
- 北原榮惠[기타하라 에이케이], 『所謂中心性網膜炎の研究』, 慶應義塾大學 博士學位論文, 1934.
- 神戸敏郎[고베 토시오], 「眼光線障礙ニ及ボス増感ノ影響ニ就イテ實驗的研究」, 『日本眼科学會雑誌』 33, 1929.

-Abstract-

The First Korean Doctor of Medicine in Ophthalmology: Early Career of Kong Pyung Woo (1907-1995) as an Unusual Example of Medical Profession in Colonial Korea

KIM Tae-Ho*

* Institute of Medical History and 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This article traces early career of Kong Pyung Woo, a public figure famous for being the first doctor of medicine in ophthalmology with Korean ethnicity in 1936, for founding and running the oldest and still the most successful private eye clinic in Korea since 1937, and also for his engagement in development of Korean mechanical typewriter since 1949. His case is an illustrative example of how a Korea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1910-1945) could build up a career to become a medical doctor, taking full advantage of the chances available.

Kong, born in 1907 in a rural province in northwestern Korea, acquired a doctor's license in 1926 by passing the qualifying examination of the Government General in Korea. The qualification test was in itself an outcome of colonial education system, in which the supply of medical doctors by only a few tertiary schools could not meet the demands.

* Institute of Medical History and 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ddress: 101 Daehak-ro, Jongro-gu, Seoul, 110-744, KOREA
Tel: 82-2-2072-0792 / E-Mail: salsin@snu.ac.kr

Received: Nov. 07, 2013; Reviewed: Nov. 13, 2013; Accepted: Dec. 09, 2013

After working for a state hospital for one year, Kong volunteered to be a visiting student at Keijo Medical College, to fulfill his dream of “becoming a prominent bacteriologist like Noguchi Hideyo.” He was soon officially appointed as a tutor at Department of Ophthalmology, as he had been endorsed by professor Satake Shyuichi for his diligence and earnestness. Satake also encouraged Kong to pursue a doctoral degree and recommended him to Tokumitsu Yoshitomi,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athology at Keijo Imperial University, so that Kong could experience cutting-edge research at the imperial university. Kong reported on his experiments on the pathology of chorioretinitis centralis by 1935. He submitted the reports to Nagoya Imperial University, Japan, as a doctoral thesis, and eventually obtained the degree in 1936, which was the first Korean doctor of medicine in ophthalmology.

The doctorate made Kong a public figure and he opened his own private clinic in 1937. The Kong Eye Clinic was the first private eye clinic owned and run by Korean, and soon became popular in Seoul. Kong’s fame as a successful practitioner gradually made him express his opinion on various social issues. Kong did not hesitate to utilize his influence to advocate the new “modern” way of living, with special emphasis on speed and efficiency. His engagement in typewriter business since 1949 may also be attributed to his firm belief in the value of speed and efficiency.

Although he could not fulfill his dream of being an academic, Kong still remains as an important figure in the history of medicine in modern Korea, not only for his publicity. By closely analyzing Kong’s personal story, one can see various aspects of opportunities, personal networks, social norms, and limitations within the colonial setting.

Keywords: Kong Pyung Woo, Kong Eye Clinic, Keijo Medical College, medical education, Colonial Korea, social status of doctors